

절강대학교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소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는 해외 여러 기독교 단체들과 교류하면서 상호간에 학술적인 지원과 학자간 교류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을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최근 기독교 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독교 학문과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중인 중국의 기독교 학술연구 단체를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글 오동일 절강대학교 기독교와타문화연구소 연구원

절강대학교 (浙江大學校)

절강대학교는 “북경에 칭화대학이 있다면 남방에 절강대학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유명한 이·공계대학으로 현재는 문·사·철 및 경상 계열도 최고의 수준에 오른대학이다. 영국의 석학에 의해 ‘동방의 캠브리지’로 불리기도 하는데 중국과학원 원사와 중국공정원 원사의 60%가 이 학교 출신인 만큼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중국내 대학 평가에서 3등 정도 되는 명문대학이며 국가 중점대학이다. ‘求是’를 교훈으로 삼고 있는 절강대학교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중의 하나이며 1897년에 ‘求是書院’으로 창건되었다. 1998년 3월 공통 역사적 연원의 절강대학교, 항주대학교, 절강농업대학교, 절강의과대학교가 합병되어 현재 규모가 가장 큰 종합대학으로 설립되며, 학교 도서관은 전국 대학에서 가장 많은 605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교육목표를 ‘종합형’, ‘연구형’, ‘창조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잡아 100년간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를 발전시키고 있다.

학과는 이공, 경제, 무역, 관리, 문학, 사학, 철학, 교육학 그리고 법률 등 크게 11개 부분으로 나눠 설립되었으며 124개의 박사과정, 192개의 석사과정이 있다.

학교가 위치한 중국 절강성 항주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절강성의 성도(城都)로, 중국이 자랑하는 관광지 중의 하나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경치가 수려한 곳이다. 특히 항주의 서호는 백낙천, 소동파 같은 시인들이 시를 읊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13세기 무렵 이탈리아의 유명한 여행가 마르코폴로는 항주에 들렀다가 도시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항주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칭송했을 정도이다. 주변의 상해시와 인접해 있어 대외 무역과 상품경제가 가장 발달하였고 경제 성장률도 줄곧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절강대학교 기독교와타문화연구센터

(The Institute of Christianity and Cross-Cultural Studies, 약칭ICCS)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에서 중국의 교육과 과학기술 및 문화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철학사 회과학 창신 기지들을 설립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주임으로는 왕소오초 교수가 맡고 있다.

ICCS는 기독교의 문화적 의미를 연구하고 그것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게 되는 타 문화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현재 연구센터에서는 헬라문화와 초기 기독교 관계연구, 종교철학과 종교간 대화, 기독교의 전파과정 연구, 전환기에 있는 중국기독교 연구, 문화와 종교간 충돌문제 연구 등 다섯 가지의 연구방향을 정하여 진행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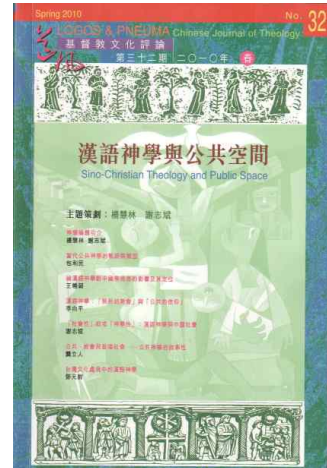
연혁

절강대학교 6개의 캠퍼스 가운데 지강캠퍼스의 전신은 기독교 대학이었다. 절강대학교는 기독교연구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역사적 이유로 중국대륙에서의 기독교연구는 중단되었으며, 20세기 80년대 개혁개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91년 3월에 절강대학교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기독교연구센터”를 공식 출범시켜 해외학자들을 초청하고, 기독교 고전, 예식, 신학과 기독교역사, 종교사회학, 종교심리학 등 강좌들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해외 화교학자들과 단체들의 도움으로 <종교와 문화>(북경, 동방출판사, 5기를 출판했음.)라는 잡지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기독교연구센터”는 운영경비, 조직제도, 연구시설 등이 전무한 상황에 해외지원에 의지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004년11월에는 “기독교연구센터”는 중국 교육부 산하 철학사회과학 창신기지로 지정되면서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센터”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ICCS는 “기독교연구센터”를 기반으로 하여 절강대 인문대학, 국제문화대학, 교육대학, 외국어대학, 법학대학 등에서 기독교문화 관련연구에 종사하던 학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학제간 연구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현재 34명의 연구원은 정교수 21명, 부교수 7명, 전임강사 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절강대학교는 기독교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학술교류와 협력

학술과 학과는 국제적인 것으로 거기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의 기독교연구는 세계 기독교문화 연구의 한 부분이 된다. 국제학술연구의 구성 부분이 되면서도 자체의 특징과 우세를 형성하는 것이 ICCS가 존재하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국내외와 학술교류와 협력은 본 센터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업으로 간주한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본 센터는 국내외 많은 단체 혹은 대학들과 다양한 학술교류와 협력을 이루어왔다. 그 주요한 형식으로는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학술 정보를 나누고, 전문가들을 서로 파견하여 학술세미나를 열기도 하였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과 젊은 교수진들을 해외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ICCS는 계속해서 의중경제문화교류협회, 콜롬비아대학, 미국CAC, 미국천주교연구회, 예일대학, 프린스턴대학, Santa Borban대학, 씨애틀 퍼시픽대학, 이태리철학연구소, 토론토대학, 암브로서도서관, 영국리츠대학, 이스라엘 베들레헴대학, 대만청화대학, 중원대학, 홍콩한어기독교문화연구소, 홍콩중문대학, 침례대학, 홍콩천주교신학연구소와 학술교류와 협력을 이어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ICCS는 고대 수메르 (Sumer) , 아카드 (Akkad) , 바벨론 (Babylon) , 이스라엘과 환지중해권의 고전학 연구에 조예가 깊은 학자들



홍콩한어기독교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중국어 잡지로서, 반년에 한번씩 발행하고 있다. 약 30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현재 까지 33권을 발행하였으며 국제학술검색 SSCI에 등재된 잡지이다.



절강대 기독교와타문화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iccs.zjhu.edu.cn/iccs/DesktopDefault.aspx>



을 초청하여 교학과 연구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헬라문화, 라틴문화, 현대종교철학, 중국과서양관계사 연구 학자와 단체들과도 협력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ICCS는 중국사회과학원세계종교연구소, 북경대학, 중국인민대학, 중앙민족대학, 복단대학, 남경대학, 칭화대학, 무한대학, 중산대학, 사천대학, 산둥대학, 복건사범대학, 화중사범대학, 영남대학 등 10여개 종교 혹은 기독교연구단체들과도 학술교류가 있다. 이들 형제 단체들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중국의 기독교문화연구에 공헌하고 있다. ICCS는 중국교육부가 직접 투자하여 운영하는 개방적인 연구단지이다.

동아시아기독교문화연구소 설립도 추진중

동북아 3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가져왔다. 특히 한반도는 오랫동안 외적 환경에 의해서 그 운명이 정해져 왔다. 이념과 전쟁, 침략으로 얼룩진 냉전시대를 벗어나 진정한 화합이아말로 한반도의 통일은 물론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다. 동북아의 경제-문화 차원에서의 상호 교류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다지는 초석이 된다.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센터는 그 부설로 '동아시아 기독교문화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중-일 기독교 간에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기독교적 차원에서의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코자 한다.

북경대학교 허화이홍 교수는 "니체가 백여년 전 '신은 죽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배제한 유럽의 새로운 문명을 제언하였지만, 오늘의 중국 학자들은 '신이 중국에 임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중국의 대안이 될 것인지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 고 하였고, 중국인민대학 리쉴우링 교수는 "기독교는 중국에서 주변화된 처지에서 주류문화가 되어 중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칭화대학교 황위성 교수는 "기독교아말로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중국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들은 단순한 인기 영합적인 즉흥적인 발언이 아닌, 중국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중국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내 기독교의 놀라운 성장과 영향력의 저변 확대이다. 이는 세계의 중심국가들(로마제국, 대영제국, 미합중국 등)에는 항상 기독교가 내부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과도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한다.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센터 부설 '동아시아기독교문화연구소'는 위와 같은 중국대학 내 기독교연구 지적분위기 속에서, 한국기독교를 중국에 보다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중국내 기독교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중-일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구축에도 기여하려 한다.

기독교가 중국의 주류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연구와 담론이 중국 지식인들에 널리 소개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 '인민의 아편'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기독교아말로 중국인들에게 삶에 궁극적 의미를 제공하고, 중국 문화를 변혁하고, 법치와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동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교환교수, 교환학생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공동연구프로젝트 진행, 정기학술지 발행, 도서 번역출판,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기독교문화 연구소'는 한-중-일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있기에 한국 그리스도인 단체들의 인적, 물적인 자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들이 추진되어지기를 기대한다.